

### 영암군, “군민주치의가 방문해 의료사각지대 없앤다”

#### 우승희 영암군수, ‘우리동네 군민주치의’ 현장 방문 점검 매주 수요일, 11개 읍·면 마을 경로당에서 건강검진 실시

우승희 영암군수가 13일 군서면 죽정 마을경로당 ‘우리동네 군민주치의’ 현장을 방문해 공중보건의사와 주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민선 8기 영암군이 시행하고 있는 우리동네 군민주치의는, 매주 수요일마다 11개 읍·면 마을 경로당을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소 직원 등이 순회하며 맞춤형

건강 검진을 해주는 정책. 영암군은 2023년 12월 현재 어르신 인구 비율 29.2%인 초고령사회로 분류돼, 어르신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민주치의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군민주치의와 보건소 직원들은 혈압, 혈당 등 기초검사를 바탕으로 건강상

담, 만성질환 관리, 국가건강검진, 심뇌혈관 예방 교육, 치매 조기검진 등을 안내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 병·의원 연계 만성질환 관리를 포함해 한방 침 서비스, 틀니 관리 등도 해주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한 분의 어르신도 의료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군민주치의의 제도의 폭과 깊이를 더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영암군은 군민주치의의 시범사업으로 3개월간 4,281명 어르신을 돌봐다.

영암=조대호기자



### 화순 사평 빨래방 3월 이불 세탁서비스 개시

#### 65세 이상 어르신, 취약계층 대상 전액 무료



해결하기 위해 군 차원에서 기획된 사업이다. 화순 빨래방은 대형세탁기, 건조기 등 세탁에 필요한 전문장비를 구축하고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관내 관공서, 사평면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마쳤다.

299개 마을별 일정에 따라 3월 11일부터 3대의 수거·배달 전용 차량을 투입하여 본격적인 수거·세탁·건조·포장·배달 등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가동에 돌입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차상위 등 취약계층은 전액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화순 사평 빨래방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정기적인 세탁물 수거 활동에 따른 주민 안부 확인 등 사회안전망도 더욱 탄탄해져 군민이 행복한 복지 화순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며, “철저한 준비로 화순 사평 빨래방 활성화에 전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1일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 계층에게 전액 무료로 제공하는 ‘수거부터 배달까지 찾아가는 이불 세탁 서비스, ‘화순 사평 빨래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화순 사평 빨래방은(이하 화순 빨래방) 2022년 9월 「2023년 사평면 탄소중립 주민편의시설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환경과, 농촌활력과, 사평면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 구비 및 건축을 완료한 후,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맡았다. 화순 빨래방은 고령의 어르신과 취약계층에서 이불 같은 대형빨래를 세탁하기 어려워하는 점에 착안, 이러한 어려움을

### 나주시, 1인 청년 가구 대상 “아침 굶지 말고 밀키트 챙겨 드세요”

#### 1인 청년 가구 80명에 지원...실시간 영양상담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 추세를 반영해 결식 비율이 높은 1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밀키트를 지원한다. 나주시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1인 청년 가구 즐거운 아침식사’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간편하고 건강한 한끼 식사’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밀키트 지원사업은 주 2회 총 4주에 걸쳐 운영되며, 240명을 모집 후 전산 추첨해 최종 8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나주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0~45세 이하인 1인 가구다.

신청은 포스터 QR코드 촬영으로 가능하다. 집 앞까지 비대면 배송하고, 모바일 어플로 레시피를 제공하는 한편, 실시간 영양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특히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61-339-4808)으로 문의하면 된다.

나주=송준표기자

###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로 담양이 들썩들썩

#### 담양군 금성면 원율마을을 방문해 다양한 봉사활동 진행

담양군은 지난 15일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차량이 금성면 원율마을을 방문해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봉사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전남행복버스 사업은 도심과 떨어져 교통과 의료환경이 열악해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민들에게 보건, 문화, 법률상담 등 맞춤형 의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담양군 자원봉사자 20여 명은 원율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검진, 치매검사 등 의료 서비스와 이·미용, 손톱관리(네일아트), 원예, 무인단말기(키오스크) 체험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했다. 또한 전남지체장애인협회의 먹거리 트럭 음료 봉사, 담양에서 활동하는 울랄라시니어밴드의 신나는 공연도 함께해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담양=박종영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숨결이 살아 있는

## 장성 필암서원

청산도 절로 절로  
녹수도 절로 절로  
산도 절로 물도 절로하니  
산수간나도 절로  
이마도 절로 삼긴 인생이라  
절로절로 늙사오리

- 김인후 선생의 '자연가(自然歌)' -

